

#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중국의 가능한 시나리오들

2022.3.22.

경제학 박사 이문형

전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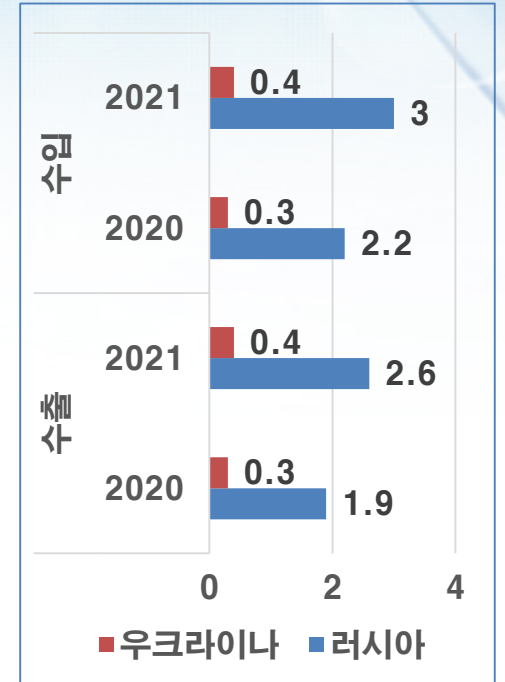
## ❖ 이 문 형 [李玟炯, Lee Moon Hyung]



- 한국외대, 국립대만대학 경제학석사, 북경대학 경제학박사(1996)
- 전 **송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(2017.4-2022.2)**
-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(1988-2016)
  - 외교부 정책자문관(1997-1998), 한중 FTA 연구지원단 제조분과 위원장(2008~2013)
  - 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, 국제산업협력센터 소장, 북경지원장 등
- **주요 연구분야: 한중 통상산업협력, 중국산업**
  - 「한중 FTA 심층연구, 제1차년도 제2차년도」, ( 2010-2111 )
  - 「중국내수시장에서 한국 주요제품의 경쟁력 분석」, ( 2010 )
  - 「대중국 산업경쟁력 확보전략」 (2012)
  - 「재중국 한국계 기업으로부터 수입실태 분석」 (2012)
  - 「중국 중서부 지역 주요 산업별 연구」 (2012-2017)
  - 「중국 동부 지역 주요 산업별 연구」 (2018-2019)
  - 「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 혁신전략」 (2020)

# ◆ 중국과 러시아/우크라이나 관계

- ❖ **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‘충돌’ 로 정의**
- 중국 언론들은 이번 러시아의 침공 원인을 미국의 패권때문이라고 인식
- ❖ **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산권 국가들과 경제협력 규모가 위축 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교역 규모는 미미한 수준**
- 미중간 대립구도가 심화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최근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.
- 2021년 러시아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.6%(국가별 순위 13위), 수입은 3%(10위)로 무역수지 11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
- 주로 핸드폰, IT 부품, 자동차와 부품, 가전제품을 수출하고, 원유, 석탄, 가스, 구리, 목재 등 자원을 수입



- ❖ **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대유럽 진출 거점으로 역할 부여하면서 최근 자본과 인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음.**
- 2021년 우크라이나가 중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0.4%로 수출 국가별 순위 49, 수입 40위로 미미한 수준
- 주로 살충제와 제초제, 핸드폰, 전동 자전거 등을 수출하고, 철광석, 옥수수, 대맥 등을 수입

# ◆ 시나리오 1: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지지(군사원조 포함)

## ● 이유

- ❖ 시진핑의 연임(2022년 10월)과 관련하여 푸틴이 모델이었음.
-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의 대만 침략 명분을 제공(시진핑 장기집권에 유리)
- ❖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국가
- 만약 러시아가 친서방 국가로 전환되면, 중앙아시아와 몽골도 영향을 받아 중국은 고립무원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음(唇亡齒寒).
- ❖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으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저렴하게 확보하는데 유리
- 러시아의 글로벌 비중은 천연가스 17%, 원유 13%로 중국이 절대로 필요한 자원들임.
- 중국의 원유 생산량 2억톤 내외, 수입량 4.6억톤으로 해외의존도는 70%
- 천연가스도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2020년 해외의존도가 44%(천연가스 수입액은 421억 달러)를 기록하며, 향후 갈수록 늘어날 전망

## 시나리오 2: 소극적 지지(군사적 원조 배제).

- 이유
  - ❖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를 바라보면서 우려가 증대
    -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반도체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제재의 충격에 대해 실감
    - 만약 러시아와 유사한 제재를 받는다면 러시아와 달리 대외개방도가 높은 중국경제는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큼.
  - ❖ 현재 중국은 지난 해 8% 성장에서 5%대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견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하기에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못함.
    - 부동산문제, 부채문제, 소수민족 문제, 민영기업에 대한 반시장화정책,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민심이 불안한 상황
  - ❖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영토분쟁 등을 이유로 잠재적 적대국가였음(遠交近攻).
    - 미국과 서방국가들과 러시아간 대립으로 중국이 현재의 미중간 갈등에서 국면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음.
    - 러시아에게 중국의 첨단 무기를 제공한다는 것은 향후 중러간 대립구도가 되면 불리해질 수도 있음.

## ◆ 향후 전망

- ❖ 첫째, 향후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외교적 관계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고려하여 소극적 지지(군사원조 배제)를 지향할 가능성이 큼.
- 중국 경제는 코로나 팬더믹, 부동산 문제, 부채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하향 국면에 있어 당장은 외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큼.
- ❖ 둘째,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권력구도 재편과 러시아에 대한 지지 정도가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갖고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.
- 중국의 권력 형태가 일인 독점체제로 간다면 집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큼.(전쟁 중에는 지도자를 바꾸지 않는다는 법칙에 따라) 즉 현재와 같이 한 사람이 국가주석, 당 총서기, 군사위 주석을 모두 장악
- 만약 권력구조가 분산형을 지향한다면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소극적 지지를 채택할 가능성이 큼. 즉 총서기, 국가주석, 군사위 주석을 나누어 맡는다는 의미